

전북대, 기록관리 전국서 '최고'

행안부 2017 기록관리 평가 '최우수등급' 쾌거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전국에서 기록관리를 가장 잘 하는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대는 최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2017년도 기록관리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평가시스템(RMBS)을 활용해 1·2차 온·오프라인 평가와 3차 조정회의 등 엄격한 단계에 걸쳐 시행됐다.

기관 유형별로 '가'(100~90점), '나'(89~80점), '다'(79~70점), '라'(69~

60점), '바'(60점 미만) 5등급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했다.

이 평가에서 전북대는 기록관리 기본 계획과 시설·장비 구축, 전자기록물 이관율, 기록물 평가 폐기, 정보 서비스 등에서 두루 호평을 받으며 '가' 등급을 받았다.

특히 올해 전국 국·공립대학교 평균 점수가 49.3점에 불과했고 50개 대학 중 28개 대학이 '바' 등급에 머무른 것과 비교해 보면 이번 전북대의 최우수 평가가 더욱 빛난다.

이남호 총장은 "이번 기록관리 최우

수평가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주었기에 이룩할 수 있었던 결과"라며 "우리대학의 공공기록물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 및 인프라 기반을 확충하고, 기록관리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 평가 및 제도 정착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국·공립대학은 지난해부터 평가에 포함돼 올해 두 번째를 맞았다.

/정해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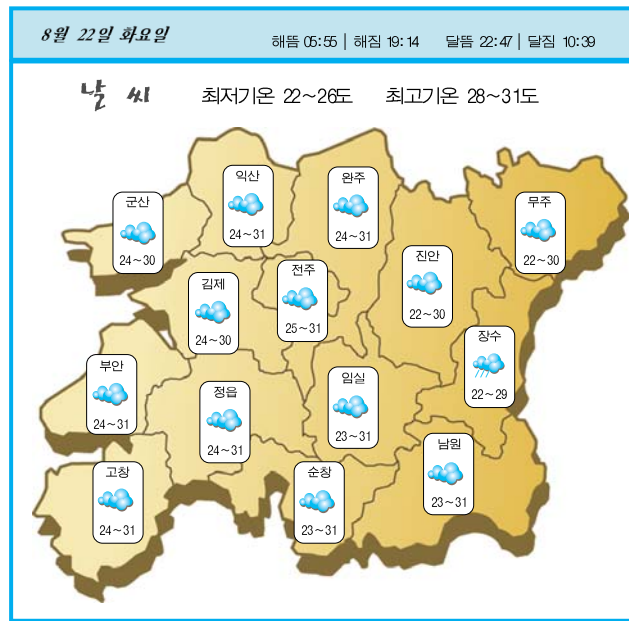
전주시, 결혼이주여성 대상 한국문화 체험 행사 진행

전주시와 전주사대문화가족지원센터는 21일 검정고시반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들과 함께 서울 롯데월드에서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일 검정고시를 치른 결혼이주여성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참여한 40여명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은 롯데월드와 아이리디움을 탐방하고 자녀들과 함께 오래전반에 학업에서 벗어나 심신을 재충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체험하는 아이리디움 탐방 후 간담회를 갖고 그간 검정고시를 공부하면서 겪은 애로사항 등 상호간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인재용 기자



전국 4년제대 197곳, 입학전형료 평균 7391원 인하

교육부, '2018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료 인하 시행 계획' 발표

다음달 시작되는 수시부터 전국 4년제 대학 197곳의 입학전형료가 평균 15.24%(7391원) 인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료 인하 시행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입 전형료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각 대학에 2018학년도 대입 전형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 202개교 중 5개교(감리교신학대·상지대·제주국제대·한일장신대·호남신학대)를 제외한 197개 대학이 2018학년도 대입 전형료 인하에 참여하기로 했다. 2018학년도 대입전형료는 전년도와 비교해 평균 15.24%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41개)는 평균 12.93% 사립대는 평균 15.81%,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대학이 평균 17.77%, 나머지 지역 대학이 평균 13.80%를 각각 인하할 계획이다.

대입전형료를 가장 많이 인하하는 대학은 서울사립대와 대전가톨릭대로, 2018학년도부터 대입전형료를 아예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총 128만명이 지원(전체 지원자의 41.8%)했던 25개 대학의 경우 대입 전형료 총 징수액 749억원)을 평균 16.25% 인하할 계획이다. 이 중 국·공립대 3곳을 제외한 22개 사립대학의 평균 대입 전형료 인하는 17.09%다.

전형유형별 인하폭을 살펴보면 가장



전주대 이호인 총장 취임 21일 전주대학교는 '제14대 이호인 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은 약 500명의 내외빈과 대학 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예배로 진행됐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많은 수험생이 지원하는 학생부교과전형(16.80%)이 가장 컸다.

학생부종합전형(16.53%), 수능전형(16.30%), 실기전형(11.92%), 논술전형(10.07%) 등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원서접수 1회당 대입전형료는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평균 3만 1591원으로 전년 대비 6377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공립대는 4457원 인하된 2만 8006

원, 사립대는 6645원 인하된 3만 2705원이다.

수도권 대학은 6800~1만 3000원, 비수도권 대학은 4500~7300원, 25개 대학은 5500~1만 1000원 정도의 전형료가 각각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입전형료가 10만원 이상이었던 고액 전형료의 경우 최대 1만 9600원까지 전형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해은 기자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인하된 전형료를 대학별 2018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에 즉시 반영하도록 해 수험생이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교육부는 내년 초까지 대입전형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2019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2017 전주비빔밥축제' 비빔문화공연 참가 공연팀 공개모집

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7 전주비빔밥축제의 주요프로그램인 '비빔문화공연' 행사에 참가할 공연팀을 오는 3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비빔문화공연'은 올해 비빔밥축제 기간 동안 매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비빔밥축제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신명나고 흥겨운 문화공연을 선보여 축제의 완성도를 높일게 된다.

모집 분야는 악기연주, 노래, 거리마술 등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4인 이내 개인 및 단체(4인 이내)로 공연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전주비빔밥축제 홈페이지

(www.bibimbapfest.com)에서 내려 받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bibimbapfest@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9월 8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비빔문화공연 참가 공연팀 모집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063-231-886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비빔밥을 주제로 한 음식문화축제로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전주비빔밥축제는 오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진행되며, 한국전통의 맛과 멋, 흥이 한 데 어우러진 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군산대,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군산대학교는 21일 군산대학교 황룡문화관에서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514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학위수여식에는 군산대학교 나이균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총동문회장, 한국산업단지 전북본부장,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장,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군산=장현기 기자

이날 수여식에서는 인문대 54명, 예술대 19명, 사회대 71명, 자연대 36명, 공대 145명, 해양대 38명 등 388명이 학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일반대학원 52명, 산업대학원 8명, 경영행정대학원 8명, 교육대학원 65명 등 133명이 석사학위를 받았고, 13명이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군산=장현기 기자

국립세종문화예술연구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